

한국농어촌공사 김동원 신임 합천지사장 취임

김상준기자 | 승인 2025.01.05 16:37 | 11면

“합천군 농업 발전과 농어민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는 지난 1일 김동원 신임 지사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은 국가애도기간에 맞춰 약식으로 진행됐으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김동원 지사장은 통영 출신으로 욱지중학교, 통영고등학교, 동아대학교 토목학과를 졸업했으며, 1997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에 입사해 본사 감사실, 밀양지사 지역개발부장, 경남 지역본부 기반사업부장을 거쳐 이번에 합천지사장으로 취임하게 됐다.



김동원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
사장

김동원 지사장은 “합천군은 농업 중심의 지역으로, 농업 발전과 농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합천군의 농업 발전과 농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직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사의 발전과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합천지사가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상준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준기자